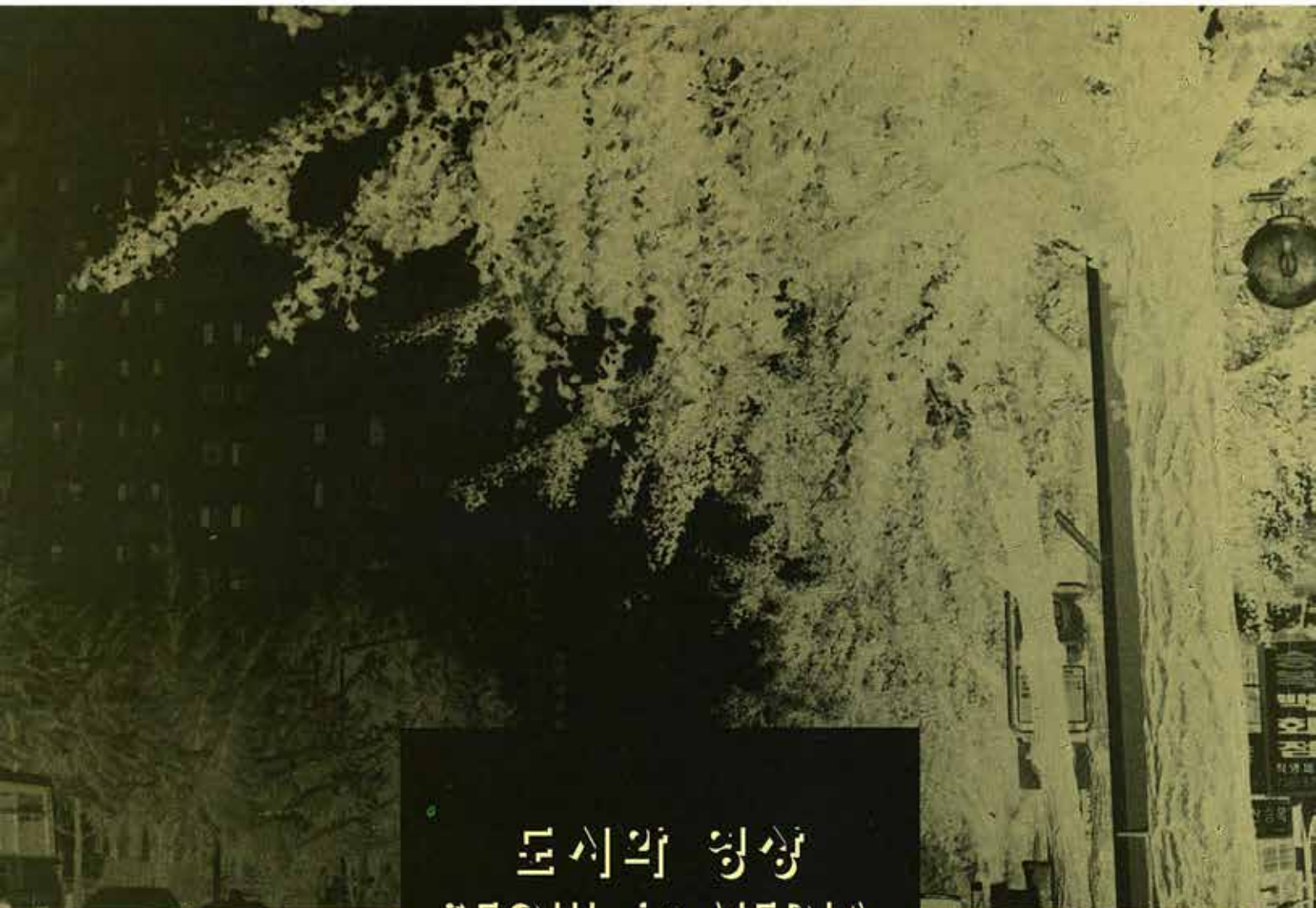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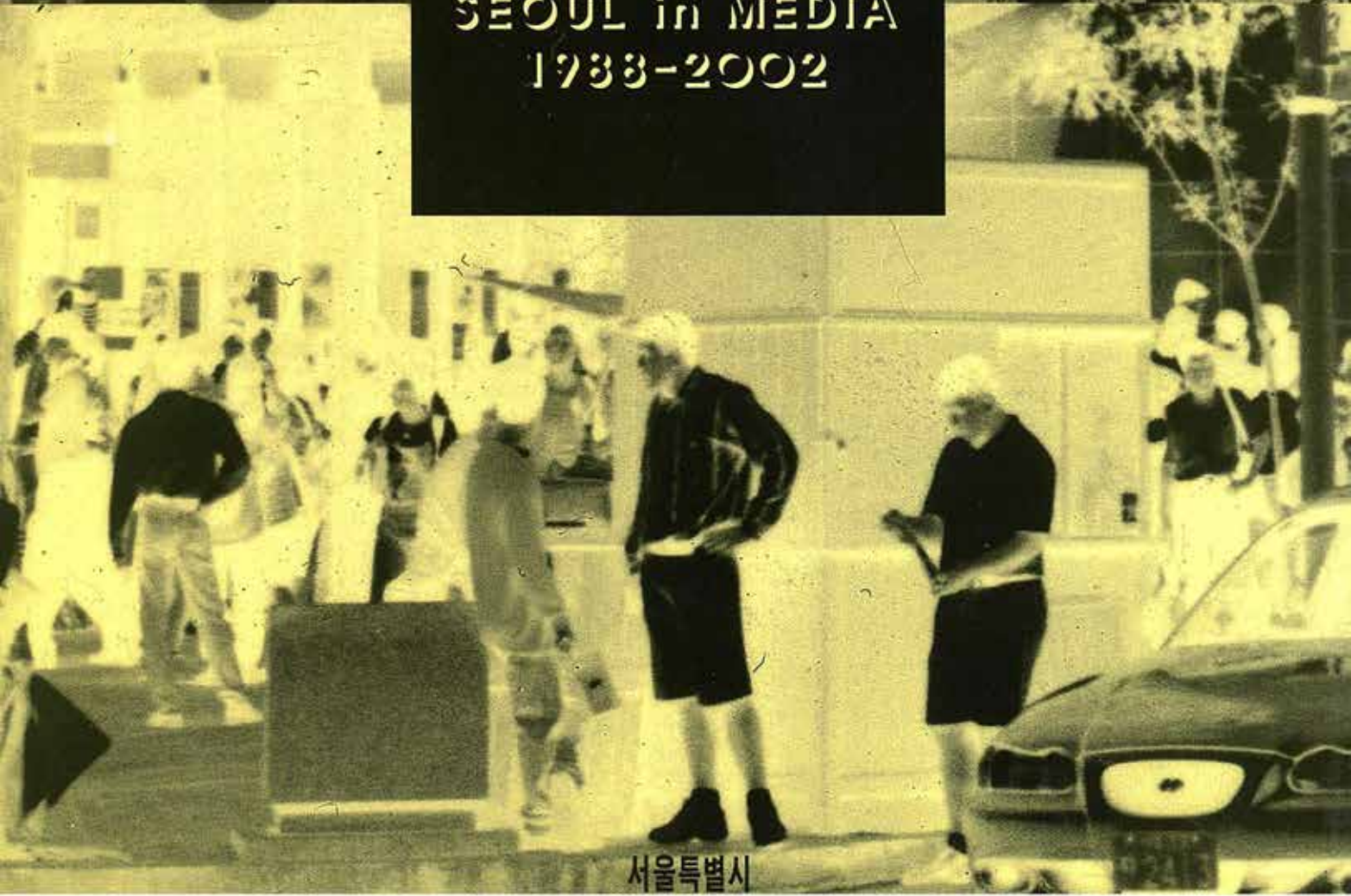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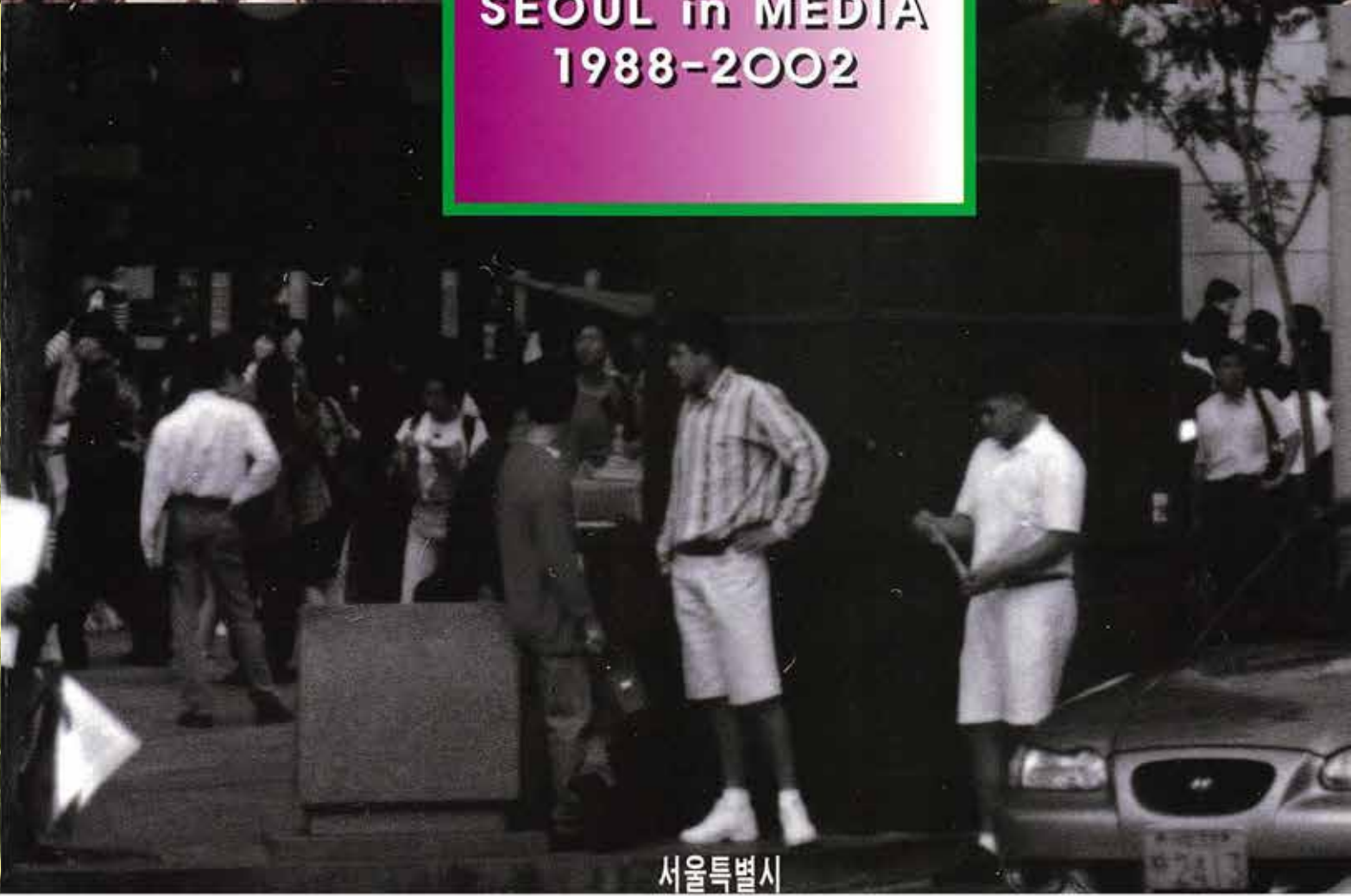
도시와 영상
SEOUL in MEDIA
1938-2002



서울특별시



도시와 영상
SEOUL in MEDIA
1988-2002



서울특별시

도시와영상 : SEOUL in MEDIA, 1988-2002

전시기간: 1996. 10. 7-10. 20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서울600년기념관)

주최: 서울특별시

후원: (주)디지털조선일보사

주관: (주)아트 프로젝트 서울

도시와 영상전.. 1988-2002 in media



인사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무더운 지난 여름을 지냈고
이제 우리는 祈禱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音樂과 詩와 그림과 映像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季節에,
市民 여러분과 함께
“96 도시와 영상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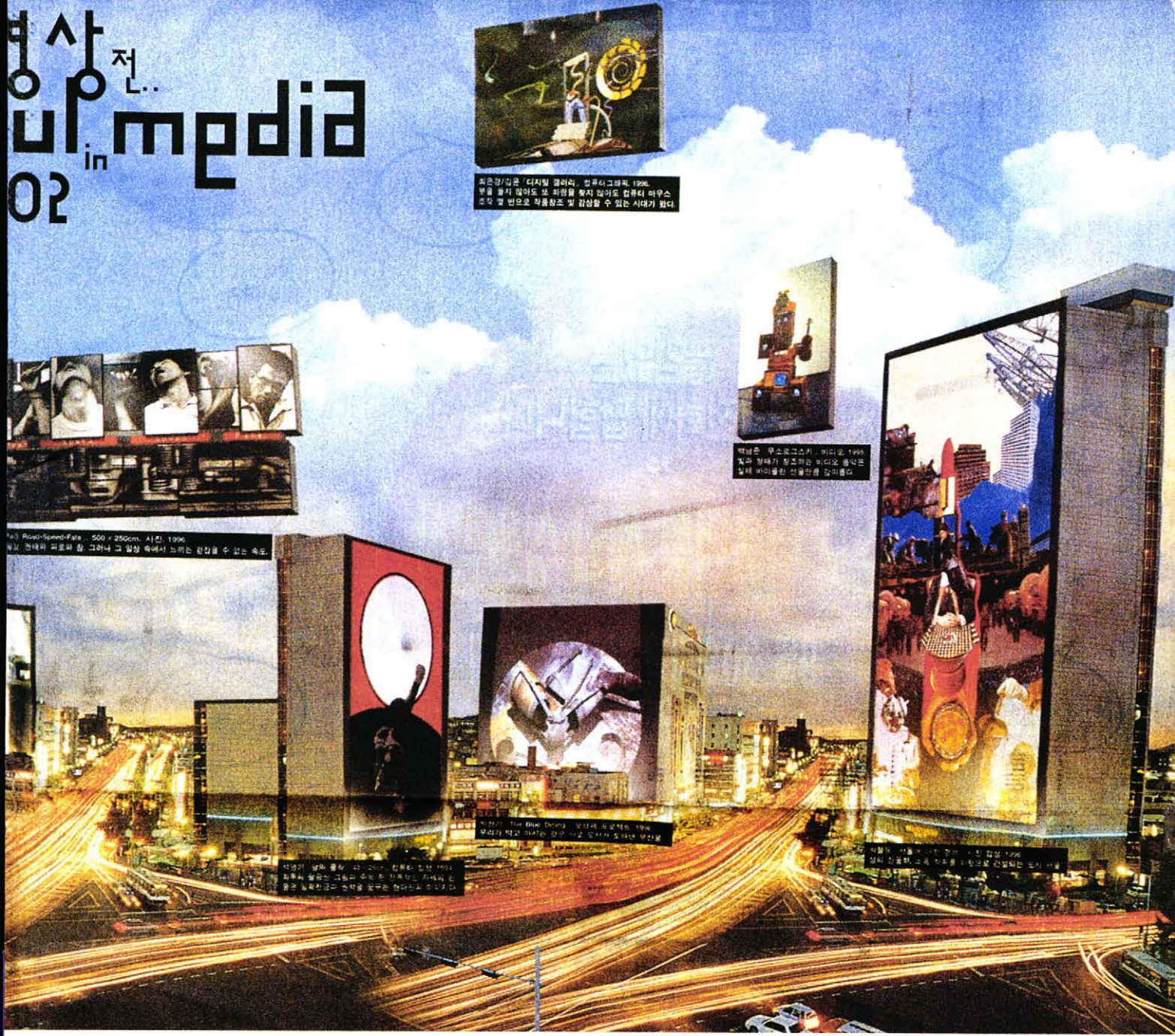
그동안 서울은 都市의 기능적 측면인
經濟成長에 우선 순위를 두고 開發하여
어느 정도의 成果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는
그동안 우리가 經濟發展과정에서

調和롭게 미리미리 챙기지 못했던
環境과 公園綠地의 保存,
그리고 文化에 대한 配慮 등
이러한 우리의 삶의 質을 높이는 部門에
積極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地方自治의 時代를 맞아 都市는
生命의 價値가 尊重되는 ‘살만한 터’로서
機能을 擔當할 수 있어야 합니다.

自治의 主人인 市民들이 安全하고, 健康하게
文化的 環境에서 지낼 수 있는
都市의 機能을 實行하는데
서울 市政의 焦點을 맞추면서
市民 여러분의 意見을 收斂하는 일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市政을 통해 能動的으로 文化를 수용하고
創出하는 것이
市民들의 實質의인 삶의 質을 높이고
外樣的 意味의 都市機能을 克服하고
‘사람이 사는 곳’으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確固히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서울시가 主擧하는
‘96 도시와 映像展’은
“서울올림픽에서(1988)-월드컵 개최까지(2002)”를
5000년 歷史속에서 現在의 時間概念으로
하나의 軸을 設定했습니다.

文化都市 서울을 가꾸기 위해
서울시가 提案하고 美術 專門人들이
具體的 代案을 마련하여 열리게 되는
이색적인 映像美術展입니다.

사진, 비디오, 컴퓨터, 도심전광판 등
다양한 映像媒體와
作家들의 藝術的 靈感이 어우러져
펼쳐지게 되는 이번 展示는,
서울의 이미지 創造를 위해
美術人들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映像言語입니다.

이러한 독특하고 尖端展示 方法을 통해
그려지는 서울의 모습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은 단순한 巨大都市가 아니라
國際都市로서 걸맞는 文化수준과
시민들에게 豊饒로운 삶의 質을 提供하는
새로운 都市의 機能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努力의 일환으로 準備되어 온
이번 “都市와 映像展”에 서울 市民 여러분의
關心과 積極的인 參與를 期待합니다.

끝으로
‘96 도시와 영상전’을 마련하느라 애써주신
運營委員會를 비롯하여 展示를 主管한
‘아트 프로젝트 서울’에 感謝드리며,

훌륭한 作品을 出品하여 주신
招待作家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서울특별시장 趙 淳



도시와 영상전/SEOUL in MEDIA, 1988-2002/주최 · 서울특별시/후원 · (주)디지털조선일보사/주관 · (주)아트프로젝트
서울/참여작가 · 강우현 공성훈 구본창 금누리 김세훈 김윤 김장섭 박불뚝 박현기 배준성 백남준 석영기 심철웅 안상수
오경화 윤동천 이강우 이원곤 이종재 정영훈 조경숙 최은경 한수정 홍성도 홍성민 홍순철/전시시스템/SEOUL in
MEDIA, 1988-2002전/기획 · 서울시립미술관 · (주)APS/운영위원 · 김홍희 박현기 안상수 강준혁 조덕현/큐레이터 · 김진
하 이섭 이주현/보조 큐레이터 · 배영환/전시진행 · 황성욱/포스터디자인 · 안상수/도록편집디자인 · 김진하 이섭/컴퓨터 작
업 · 이해란 김세나/원색분해 · 그래픽코리아/**ART VISION · CITY VISION**전/기획 및 진행 · 김진하 이섭 박삼철/아트
디렉터 · 홍순철/기술디렉터 · 장형재/작품필름제공 · 김윤 박현기 석영기 심철웅 안상수 오경화 육근병 윤동천 이윤 이원
곤 최은경 홍순철/**CITY & IMAGE : SEOUL in MEDIA, 1988-2002 Exhibition**/Present · The Metropolis of
Seoul/Support · Digital Chosun/Supervision · Art Project Seoul Co., LTD./ARTISTS · Woohyun Kang
Sunghoon Kong Bohncang Koo Nuri Gum Saehoon Kim Yoon Kim Jangsub Kim Buldong Park
Hyunki Park Joonsung Bai Namjoon Paik Youngki Souk Chulwoong Sim Sangsoo Ahn Kyunghwa
Oh Dongchun Yoon Kangwoo Lee Yoom Rhee Wonkon Yi Joongjae Lee Younghoon Jeong
Kyoongsook Cho Eunkyong Choi Soojung Han Seongdo Hong Sungmin Hong Sooncheul
Hong/STAFF/Planning Exhibition · Seoul Metropolitan Museum of Art · Art Project Seoul
CO., LTD./Committee · Honghee Kim Sangsoo Ahn Hyunki Park Junhyuk Kang Dukhyun Cho/Curator
· Jinha Kim Sop Lee Juheon Lee/Assistant Curator · Younghwan Bai/Addiministration · Seongok
Hwang/Catalogue Design · Jinha Kim Sop Lee/Poster Design · Sangsoo Ahn/ Computer work · Hyeran
Lee Sena Kim/Color Separation · Graphic Korea/**ART VISION · CITY VISION Exhibition**/Planning
Exhibition · Jinha Kim Sop Lee Samchul Park/Art Director · Sooncheul Hong/Technic Director ·
Hyoungjae Jang/Support Artists · Yoon Kim Hyunki Park Youngki Soug Cheolwoong Sim Sangsoo
Ahn Kyoungghwa Oh Keonbyoung Yook Dongchun Yoon Yoom Rhee Wonkon Yi Eunkyong Choi
Soonchul Hong/ 서울시립미술관 ·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1 전화 736-2025 팩스:723-2490 Seoul Metropolitan
Museum of Art · 2-1 Shinmun ro, Jongro gu, Seoul, Korea/(주)아트 프로젝트 서울 ·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1
종로오피스텔1218호 전화:744-5095 팩스:744-5096/Art Project Seoul CO., LTD. #1218 Jongro
Officetel, Nakwon dong, Jongro ku, Seoul, Korea./도록발간일:1996. 10. 1

도시와 영상전을 기획하며

1. 우리는 정보와 이미지의 홍수속에서 산다. 이 정보와 이미지들은 도시공간에서 매스미디어에 의해 우리들의 일상에 스펙트럼처럼 펼쳐진다. 미디어는 정보를 창출하고 정보는 수신자로 대중을 필요로 한다. 정보량이 많을때 영상미디어는 수신자의 수용력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힘을 갖게 된다. 즉 정보미디어가 수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스로의 파급력을 갖게되고 수신자는 이를 선택만 한다. 따라서 정보나 이미지는 메시지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전달 '수단' 만을 강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상이미지도 스스로가 생성하여 우리들의 보고 보여지는 과정과 인식하는 과정에 기능한다.

정보화시대, 즉 후기산업사회의 체계로 들어선 현재 지구는 하이테크놀로지 영상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전까지의 음성에 의한 전화에서 벗어나 텔레텍스트(Teletext)는 비디오, 문자, 그래픽등의 시각언어가 쌍방 송수신 되고, 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VCR등의 기기들이 하나의 통합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 멀티미디어 기기는 스스로 여러정보들을 수신, 저장, 수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기술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 빠르고 정확하게 동시적으로 여러 정보를 음성과 영상으로 서로 교환하게 한다. 특히 영상(-외적인 의미로는 사진,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를 통한 화상 등의 매체를 가리키고, 이런 지시적인 명사에서 벗어나면 위의 매체들이 보여주는 사물과 보는사람의 의식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많은 정보들을 송수신한다. 모니터나 광고판, 영화자막을 통해서 영상의 세계, 영상위의 세계, 영상으로서의 세계를 교환하며 소통하고 소비한다.

또한 영상은, 문자나 언어등의 관념이 아닌, 감각에 의한 체계로 사물을 인식함으로 거기에 따른 소통방식이나 기존의 생활습관까지도 바뀌게 했다. 인간의 사고작용을 요구했던 문자에 비해 영상이미지는 영상이나, 분석, 종합을 요구하지 않고 영상 그자체로 우리의 뇌리에 스테레오타입으로 입력되어 매우 간단하게 수신자의 정서나 사유구조속에 그대로 침투한다. 그결과로 읽기, 즉 인쇄매체의 약화가 두드러지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인식하게 된다. 이점에서 영상미디어는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거나 인간 감각을 연장시켜 주는 구체적 수단이라 할수있다. 또한 영상미디어의 발전은, 우리 주변의 모든 기계나 매체들에 의해, 우리들의 감성이나 정신영역까지도 자연스럽게 변모시킨다.

영상시대의 사회적으로 큰 변화양상은 산업사회의 특징이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예를들면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자, 즉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판단 중심이었던 것이 정보사회에서는 수용자(소비자)가 원하는 감각이나 기호 중심으로 바뀐다. 사회적인 명분이나 공공적인 가치등 공적인 영역이 위축되고 개인의 자기중심적인 사적 영역이 확장되며 오락이나 가벼운 정보중심의 문화가 일상적으로 펼쳐진다. 규제가 약화되고, 보다 강력한 시장경쟁이 전개되고, 빠른것(SPEED)을 추구하고, 섹슈얼리티의 왜곡, 그리고 상업적인 소비욕망을 전체사회의 의미체계로 우리에게 선사한다.

현대인들은 오로지 자기가 속한 사회와 사람들이 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위해, 또는 자기자신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에 의지하고, 미디어는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간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에 이르기까지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시각이미지들은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을 그 소재로 하던것에서 점점 더 가상현실을 더욱 사실처럼 증폭해 낸다. 때문에 시각이미지의 생산수단인 영상미디어는 가장 쉽고 편하게 우리들의 정서에 이러한 정보사회의 특징을 각인한다. 가령 TV처럼 영상을 통해 보고 보여주는 의미를 수용시키는 것에서부터, 훨씬 크게 제도화된 방송메카니즘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주체적이고 개별화된 기호(嗜好)에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작용한다.

대중매체의 메카니즘과는, 상관없이 영상미술은 비제도화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생산적이다. 영상미술언어는 과학과 기술에 의한 미디어에 의존하더라도 우리들에게 다르게 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요구한다. 그래서 미디어 자체에만 시점이 고정되지 않으며 우리들의 의식에 무차별 정보세례를 퍼붓는 기존의 중성화되고 제도화된 매스미디어구조에 오히려 냉소적이거나 공격적이다. 영상미술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그 소재로 하더라도 그것을 작가의 사유나 감각으로 특화시킨다. 사물이나 현상을 기호로, 사건을 의미로, 심리를 표현으로, 기술을 소통의 기재로 변환시키며 파롤(Parole)로서의 상징언어를 생산한다. 그리고 새로운 양식이나 형식, 나아가 새로운 문맥에서의 시각적인 틀을 요구한다. 그것은 물론 장비나 기술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태도보다는 상상력·개념·표현·반영·해석등의 미학적 인 차원에서의 메시지에 사회문화적인 의미들을 추가한다.

더불어 미술언어는 도시사회학이나 도시진단학등의 통계적인 관점의 학문에 비해 사람들의 개체성과 개별적인 의식들을 포착해내고 반영하여 한시대의 삶의 전형성과, 도시공간내에서의 복잡성을 더욱 깊이있게 사고하게 한다. 그리고 자기표현의 확장과 도전적인 실험 정신, 수평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눈' 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내에서 일정한 가치를 확보한다.

2. 「도시와 영상:SEOUL in MEDIA, 1988-2002」전과 「ART·VISION & CITY VISION」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상에 의한 문화의 전환시점과 현장을 그 배경으로 기획 되었다. 우선 1988-2002라는 시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시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현재이며, 그것은 우리들이 실제 살고있는 구체적인 시간대 뿐 아니라 정신적인 패러다임조차도 엄청나게 변환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도시(서울)도 이전의 물리적인 지형에서 읽을수 없는, 급속히 삶의 모든 조건과 양상과 인식이 바뀌는 현장이다. 그간의 서울이미지는 단순했다. 주로 도시개발상의 무계획성이나 주택, 환경, 교통, 도시미관, 인구, 실업률, 가도시화로 인한 계토, 대중문화... 등,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면서도 질서화와 정보화, 국제화를 우선하는 복합적인 인텔리전트 시티를 지향함으로 전근대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기능성이 혼재되어 있고, 많은 모순점과 또 새로운 가능성이 교차되어 왔다.

이런 전환기에 영상작가들의 시점에서 서울의 삶과 문화적인 정체성을 반영해 보기, 그리고 전적으로 작가의 개인적이고 섬세한 관찰에 의한 일상성과 시각성을 찾아보기가 이 전시 기획의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세계를 바라보는 양식의 변화, 즉 운동과 변화의 감각에 의해서 관객 자신의 당대성과 현장을 기반으로 새롭게 미술작품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기회제공도 중요한 부분이다.

전체적인 전시구성요소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번째는 영상매체 자체를 순수미술의 영역에서 매체가 갖고 있는 형식적 특성이나 시각성등의 실험성과 기술성을 우선하는 요소로 「속도/시간/움직임/기호/시각성」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다. 두번째는 「일상/욕망/성/환경/문화/정신」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들인데, 그것은 한시대와 사회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록적인 가치와 핵심에 접근하는 상징성으로 미술과 도시성을 동시에 연결할수 있는 훌륭한 고리가 된다. 다시말하면 이 파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부터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시간성에 비례해서 변화하는 공간에 대해서도 존재론적으로 명민한 반응을 한다. 물론 이 두가지가 영상미술작가들에게 있어서 서로 분리되어 해석될 것은 아니다. 한 작가의 작품에서 이 모든 요소는 상호 교합할수 있기 때문이며 또 작가들이 이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출품작품은 작가로서의 다양한 특징이 모두 수용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또 현재 서울에서 일반인들이 접할수 있는 매체들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복사, 사진에서부터 비디오, 컴퓨터, 도심전광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고려 되었다.

전광판미술 「ART·VISION & CITY·VISION」전은 현대사회에서의 새로운 질서인 복합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하나의 접근 시도이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이전의 사회적 양상인 분할(모더니즘시대의 특징인 전문성, 개별성, 단절 등)이 소멸되고 모든 부분에서 복합성과 상호의존성이 점점 증가한다. 도시나 일상, 미디어, 영상미술 모두 이러한 조건을 직접적으로 수용하며 총체적으로 상호 넘나든다. 마찬가지로 이 시도도 작가 개인들의 작품세계가 상호 넘나들며 하나의 또다른 작품으로 리메이킹되어 새로운 작품개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또한 작가의 퍼스널미디어인 작품과 매스미디어인 전광판이 상호 넘나들면서 영상의 새로운 소통가능성과 동시에 아트 필름의 대중성에 대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타진해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3. 전시를 기획하면서 작가들에게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채 전시전체의 컨셉을 전시진행과정중에 도출해내야 하는것은 기획측엔 큰 부담이었다. 즉 명료한 언어로 전시의 핵심을 작가들에게 화두로 주었어야 했는데, 그것은 전시 기획·일정·진행과정등 여러 사정으로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획팀에 의한 구체적인 명제(언어)가 작가의 내밀한 체험과 상상력을 제어할수도 있다는 점에서 누구든지 쉽고 자연스럽게 접근토록 평범한(?) 부제를 붙였다.

전시가 진행되면서 작가들의 출품작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영상시대로의 전환기에 영상작가들이 바라보는 시방식과, 거기에 비친 도시의 삶과 문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가 숙제로 남았다. 아직도 시작이다.

서울-끈적거림-활아 내기-향수/이 섭 '큐레이터' /도시는 욕망의 비계 덩어리다. 자연을 삼키고 허구의 자연을 만들어 내는 도시는 자연보다 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 안에 들어앉았다. 숨쉬기가 아주 빠른 체내 활동을 요구하는 도시는 자신에게 속한 그 무엇이든지 조금만 느려도 도태시키는 현기증 나는 속도로 질주한다. 도시는 터, 곳으로써 무엇을 포용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기체다. 잡아먹는 유기물. 그래서 자신의 비계를 살찌운다. / 서울은 거대하다. 그 큰 몸집과 함께 욕망의 밀도도 크다. 그만큼 비계 덩어리의 양감이 풍부하다. 그래서 욕망과 자신의 꿈이 하나인 사람들은 서울의 비계 덩어리 안으로 기꺼이 편입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서울의 빠른 원운동 안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일상의 다큐멘터리를 우리는 서울에서 만난다. / 영상 미술을 통해, 미디어에 담기는 서울은 기록되지 않으며 이미지를 생산한다. 서울의 모습은 어떻게 이미지로 변신하는가? 낡은 기록사진을 통해 우리에게 낯익은 서울의 모습은 풍경이다. 서울을 두고 잘 차려 입은 경중미인이라던가? 기적이라는 형용사를 달고 있는 한강을 배경으로 축하니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하나의 전형으로 확인더 안으로 들어와 서울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낸다. 남산에서 내려다 본 도심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우리도 이만큼 고층 빌딩을 갖고 있다고, 알싸한 포장지로 둔갑하고 서울을 내비친다. 그러나 서울은 더 이상 감상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기록되어야 하는 편린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어 내며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애 쓴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살아 있음에 감사하는 하루. 서울은 싸움터다. 미디어에 담겨지는 서울은 그래서 화면 뒤에 숨겨지는 삶의 조각들을 조심스레 이어간다. / 서울의 이미지는 욕망을 활아 낸다. 영상 이미지는 피사체를 육감으로 잡아내고 서울보다 더 빠르게 쏟아 낸다. 속이 거북함으로 토해 내기. 아니다. 서울다운, 사는 방식의 체득이다. 차분한 어조로 기승전결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쩍 비계 속에서 허덕이는 활나를 잡아낸다. 그래서 이미지로 드러나는 서울은 광고사진처럼 번지르르한 기름 뱃새를 숨기지 않는다. 뽕양계 분칠을 하고 한껏 폼을 낸 서울의 어떤 모습도 그 분가루 위로 스멀대며 베어 나오는 기름기를 감추지 못한다. 서울이 싫다 하면서, 각박하다 하면서도 서울로 서울로 모여드는 군상들의 저 가슴 밑바닥에는 번지르르한 서울의 비계를 먹고 싶은 식욕이 있다. 식욕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로 욕망의 그늘에 숨어 있는 처연한 감상을 서울의 한 구석에서 느껴 보기도 하지만 미끈거리는 촉감을 아주 떨칠 수는 없다. / 어느 대중 가수의 노랫말처럼 서울은 찾아오기는 해도 찾을 것이 없는 공터일지 모른다. 쓸쓸하고 황량한 도시의 모습을 잘 표현한 그 가수의 노래는 술 한잔 걸치고 들어가 뽕뽕거리며 소리쳐 불러 보는 노래방의 답답함과 친숙하다. 서울의 진짜 모습은 이처럼 매일 일어나는 너와 나의 생활 속에서 고스란히 묻어 난다. 무리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이랄지 희색 빛 도심에서 자연-전원을 꿈꾸는 향수랄지 하는 신파조의 감상들이 유치가 찬란하더라도 서울에서의 삶은 그것을 소중히 할 수 밖에 없다. 추석이 되면, 설이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서울을 빠져나가 고향으로 간다. 그렇게 갈 곳이 있는, 가야 할 곳이 정해진 사람들이 모여 향수를 술에 담아 내는 곳이 서울이다. 이 곳은 욕정을 사르는 곳. 그래서 가슴은 늘 비어 있다. 서울은 딱 찬 듯 보이지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허허로움으로 가득하다. /서울은 대개의

도시가 갖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다. 아주 빠르게 여기까지 왔고, 더 빠르게 앞으로 가려 한다. 어떤 것도 눈여겨 볼만한 겨를 없이 빠르기에만 의존하는 서울에서는 그래서 그 품에 안겨 사는 사람들도 꼬박꼬박 챙겨 보기를 잊은지 오래다. 육백년의 세월이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지금의 서울은 사실 속도에 의존한지 그리 오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어제의 서울을 잊고 산다. 차분하다거나 곱곰이 무엇을 생각한다거나 하는 따위의 시간 쓰기는 낭비처럼 보이고, 덜덜어진 서울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바글바글 거리는 사람들의 틈에 끼어 맞는 서울의 아침부터 지쳐 잠들 때까지 서울의 시계는 나를, 너를 바빠 움직이게 만들뿐이다. 그것은 서울의 욕망을 거머쥔 수 있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그럼으로 서울의 바쁜 시계 바늘의 초 운동은 어찌 보면 서울이 선사하는 축복일 수 있다. 초침을 따라가는, 탈락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그렇다. /서울은 자연과 투쟁을 통해 몸집을 불리지 않는다. 자연을 무시한다. 아니 말살을 시킴으로써 서울은 존재한다. 타협이란 없다. 따라서 서울에는 녹색 이미지가 없다. 큰 건물 앞을 치장하는 인공 조경은 흐릿한 서울에 약간의 색을, 자연의 색을 선사하지만 화려한 죽음의 분장처럼 보인다. 삶의 터전도 그와 같은 서울의 몸집 불리기에 간단없이 *'벽전상해'(碧田桑海)의 꼴이 난다. (*사실 '상전벽해'가 올바른 표기지만 서울의 변모된 모습은 단순히 바뀐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로 남기에 이와 같은 조어(造語)를 사용해 본다.) 산의 몸을 파고 들어 앉은 산동네가, 그것을 밀어내고 재개발의 명목으로 들어앉은 아파트 단지가 역시 서울의 자연을 빼먹기는 마찬가지다. 서울다운 사람만 살 수 있는 조건을 서울은 요구한다. 서울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이 화해함으로써 서울씩 자연을 이해하고 만족해한다. 그럼으로 서울의 희망은 무엇을 갈망하는데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고 화해함으로 존재한다. 최소한 서울에서의 희망은 그렇다. 그래서 서울의 녹색(희망)은 울창한 숲의 그 녹색(자연)이 아니라 태평로를 지키고 있는 가로수의 녹색(서울)처럼 뿌연게 존재한다. / 미술이 간섭하는 도시의 이미지들은 상상력을 제어하고 실존적 접근을 통해 부조리를 각인 시켰다. 그러나 서울의 이미지들이 그렇게 앞서간 미술을 쫓아 뷰 확인더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물론 가상의 이미지를 가공하자는 말은 아니다.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감을 유지한다면 결국 서울의 품속에서 하루를 일구어 내는 너와 나를 포착할 테니 말이다. 미술의 자유로움과 상상력을 통해 서울의 저 끈적거리는 현실적 불쾌함을 끈적거리는 유쾌함-마치 진흙탕 속에 몸을 맡기고 얻는 자유처럼-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서울은 그것을 용납하리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고름을 활아 내는 것처럼. 사과나무가 없어도 좋고 유람선이 한가롭게 떠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욕망의 그늘에 숨겨진 우리가 쉴 수 있는 잃어버린 숲이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미술이 나무를 심지는 못하겠지만, 가슴속에 알알이 나무를 그려 줄 수는 있을 테니. 서울은 그것을 이해하리라. 아직도 진한 향수를 느끼고 있으니. 결국 서울은 너와 내가 살아야 할 곳, 바로 그 터다. 좀더 각박하지 않다면 말이다. / 어떤 감상에 젖어 서울을 거닐고 싶다. 서울은 기꺼이 자신의 그 큰 몸에서 어느 구석 하나 톱하니 잘라 내어 우리를 걷게 하리라. 좀더 각박하지 않다면 말이다. /*이 글은 전시의 주제를 이미지로 보다 명확히 하고자 에세이 형식을 빌려 서울을 그려 본 것이다.*

경 고

「연소자 관람물기」 등급입니다.

따라서 만 18세가 안된 연소자들에게는

판매·대여 및 시청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모님들께서는 만18세미만의 자녀들이

이 비디오물을 시청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현
공성훈
구본창
금누리
김세훈
김운
김장섭
박동기
박현기
배준성
백남준
석영기
심철웅
안상수
오경화
운동천
이강우
이원곤
이종재
정영훈
조경숙
최은경
한수정
홍성도
홍성민
홍순철

강우현/Woohyun KANG

1980 홍익대학교 응용미술과 동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1985 國際 出版Design Training Course 修了 /Asian Cultural Center for UNESCO(日本/東京)

단체전

1994 韓國出版美術大展1994 出品(서울市立美術館)
1993 柳在守/康禹鉉 Illustration原畫2人展 出品(藝術의殿堂한가람美術館)
1993 第3回 韓國出版美術家協會 會員展 出品(서울市立美術館)
1992 第3回 國際그림童話 Illustration原畫展 出品(藝術의殿堂한가람美術館)
1992 世界 어린이圖書 Poster展示會 出品(藝術의殿堂한가람美術館)
1992 第2回 韓國出版美術家協會 會員展(서울그림展) 出品(서울市立美術館)
1991 忠州市 都市 步行者 案内 標示體系디자인 共同研究(忠州市)
1990 第1回 國際그림童話 Illustration原畫展 出品(롯데百貨店 美術館)
1990 野生動物 保護를 爲한 基金 募金展 出品(日本國際兒童圖書評議會(日本/東京))

1990 第1回 韓國出版美術家協會 會員展 出品(朝鮮日報 美術館)
1989 BIB-89入賞作品展 出品(Slovak NationalGallery(체코/Bratislava)

외 15권의 그림동화 저서

수상

BIB-89 Biennale of Illustrations Bratislava 金牌賞 受賞(체코/브라티슬라바)
The BIB International Committee,Bratislava,CZECHOSLOVAKIA
5th NOMA Concourse for Picture Book Illustrations 大賞 受賞(日本/東京)
Asian Cultural Center for UNESCO
주소:서울 중구 장충동 1가 62-35 경일빌딩401호
전화:272-0655

공성훈/Sunghun KONG

1987 서울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1991 서울산업대학 전자공학과졸업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학과졸업

개인전

1991 Blind-work(관훈 갤러리, 모란미술관(서울,남양주군)
1993 완벽한리얼리티,완벽한 평면성을 위한 프로젝트 (완벽한회화)(코아트갤러리 서울)

1996 Dust Painting(MANIF Seoul/예술의전당)

단체전

1995 미술,습관,반성(금호갤러리 서울)
썩(선재 미술관)
빠(인스탄트 갤러리,서울)
자전적 문화론-성난 얼굴로 돌아보라(갤러리 서호,서울)
LOGOS&PATHOS(관훈 갤러리,서울)
해방50주년 역사미술전
시멘트와 미술의 만남(성곡 미술관,서울)
1996 정치와 미술전(보다 갤러리 서울)

구본창/Bohnchang KOO

1953 서울 출생
1975 연세 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1979-85 독일 함부르크 국립조형미술대학교 사진 전공

개인전

1985 한마당 화랑(서울)
1987 오사카 포토 인터폼 개인전(와이드갤러리, 동경)
1990 "생각의 바다"(서미 갤러리,서울)
1993 "굿바이 파라다이스"(서미 갤러리,서울)
1995 "숨"(서미 갤러리,서울)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387-33
전화 0340-551-4903

금누리/Nuri GUM

1976 홍익대미술대학 조소과
1979 홍익대 미술대학원 조각과
1981 국립파리 응용미술공예대학 입체조형과
현직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개인전

1977 네모꼴 변주전 (청년작가회관,서울)
1982 '누리1982'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7 '누리1987' (공간 미술관, 서울)
1991 '누리1991' (갤러리미건, 서울)
1992 '누리1991' (테오도르미술관, 토포토)
1993 '금누리,안상수 이중개인전' (운 갤러리, 서울)

단체전

1986 서울현대미술 6인전 도쿄 갤러리
1981 30/40:기하학이 있는 추상전,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9 한국현대미술전, 멕시코시,국립현대미술관
1989 만리장성과 베니스를위한 현대미술전, 파리,북경,역사박물관
1990 전자카페통신미술참가,서울+로스엔젤레스,안 그라피스
1991 현대한국미술전,옛상프로팡스,바자렐리 재단 미술관
1992 현대미술제,과천 현대미술관
1993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전,서울 미술관
1995 한국조각의 오늘전,서울 종로갤러리
1996 나고야,서울,입체조형의 교류전,시민갤러리,나고야
주소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54-10
전화 918-2261(집) 910-4624(연구실) 919-4973(작)

김세훈/Saehoon KIM

1964년생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도안과, 동 대학원 시각디자인과 졸업
U.C.L.A Film & TV과 졸업
제23회,26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특선
제25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상공부 장관전
U.C.L.A Graduate Division Award수상
영화 "네멋대로해라", "그대안의 블루" 타이틀 디자인
현재 한서대학교 영상미술학과 전임강사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33-40 외인주택 93호
전화 02-794-7893

김 윤/KIM,Yoon

1986 홍익대학교 조소과
1988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각과 졸업

개인전

1989 Art Now Sculpture & Computer Graphs(관훈미술관, 서울)
1990 Computer Art Now(갤러리2000, 서울)
1994 Computer Art & Installation(미술회관, 서울)

단체전

21세기를 향한 조각의 새 표현전(모란미술관 야외전시장,경기도 마석)
DIGITAL-MOV컴퓨터 애니메이션전(한국디자인 포장센터, 서울)
미술과 테크놀로지전(예술의전당 미술관,서울)
과학+예술전(KOEX전시장, 서울)
테크놀로지 아트전 - 그 2000년대를 향한 모색(갤러리 그레이스, 서울)
'93 EXPO테크노아트전 - 자연과 테크놀로지(엑스포 문예전시관, 대전)
SICAS 93 서울 국제 컴퓨터 아트 쇼(백상 갤러리, 서울)
PATERSON미술관 초대전(PATERSON미술관, 뉴저지, 미국)
서울 니맥스 미술제(Anthology Film Archives, 뉴욕, 미국)
인간과 기계-테크놀로지 아트전(동아갤러리)
돌아온 도깨비전(서남 미술관, 서울)
미술의 해 기념 공간의 반란 초대전 (시립미술관, 서울)
광주비엔날레(광주 비엔날레 전시장,광주)
'96 대구·아시아미술전(문화예술회관 전시실, 대구)
현재 한서대학교 영상미술학과 교수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52-14
전화 02-406-7698(집) 414-9530(작) 0455-60-1471(연)

김장섭/Jangsup KIM

1953서울생
홍익대학 미술대학 회화와 수료
개인전4회

단체전

1974-79 양대팡당전
1976-80 ST 그룹전
1979-86 에콜 · 드 · 서울전
1980 제11회 Paris Biennale(시립미술관,파리)
1982 현대지의조형, 한국과일본전(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교토)
1988 제2회 Paper Work Biennale(레오폴드 미술관,뮌헨)
1992-4 한국사진의 수평전(서울)
1994 한국 현대사진의 흐름전(예술의전당,서울)
1995 사진, 오늘의 위상전(선재미술관,경주)
현재 김장섭 사진연구소운영
주소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441
전화 0344-63-3401(집) 581-7279(작)

박현기/Hyunki PARK

196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수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건축과 졸업

개인전

1978 Video Art Show(LEE Gallery,대구)
1979 Video Works(한국화랑, 서울)
1985 Installation(수화랑, 대구)
Video Performance & Installation(가마꾸라화랑, 도쿄)
1993 KODAMA Gallery(오사카, 일본)
1994 인공Gallery(서울)

단체전

1979 15회 쌍파울로 비엔날레(쌍파울로,브라질)
1980 11회 파리 비엔날레(파리,프랑스)
1978-95 에콜 드 서울
1990 International Video Festival(Kualalumpur,Malaysia)
1995 광주 비엔날레(광주)
1996 Install-Scape(대구)

박불똥/Buldong PARK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개인전

1995 눈빛 (관훈 미술관)
1989 결사 반대(그림마당 민)

단체전

1991 한국현대 미술의 한국성 모색전 (한원 갤러리)
1992 오늘의 삶 - 오늘의 미술전
꿈과 현실의 대결전(암구정 현대미술관)
1993 제5회 아바나 비엔날레(쿠바 아바나 국립미술관)
코리아 통일미술전 (일본 동경 센트랄 미술관)
1994 오늘의 한국 미술-태평양을 건너서 전(금호 미술관 뉴욕 퀸즈 뮤지엄)
1995 한국 현대미술전(중국 북경 중국 미술관)
95 서울 판화 미술제(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한국 일러스트레이션의 언어와 현실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배준성/Joonsung BAE

1967 광주생
199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개인전

1996 "독후감"(금호갤러리, 서울)

단체전

1993 신세대 감수성과 미의식전(금호갤러리, 서울)
3人行-김동유,배준성,허구영(제3갤러리,서울)
금호갤러리 개관4주년 기념전-기호,언어,책, 예술(금호 갤러리,서울)
제8회 로고스와 파토스전(관훈 갤러리,서울)
대전 엑스포 기념-외연과 박람전(홍인 갤러리,대전)
1994 녹색갤러리 개관 기념전 "畫題詩, 詩題畫"-배준성 한수정 2인전
"HIDDEN IN SPACE"(녹색 갤러리,서울)
제9회 로고스와 파토스전(관훈 갤러리,서울)
작가와 환경전(덕원 미술관,서울)
김동유,배준성,한수정,허구영전(가인 화랑,서울)
1995 국제 복사 미술제(갤러리 아트빔,서울)
크리셰미술과 이미지의 고고학(송산화랑,청주)
"CINEMA IN GALLEY"-영화 "카프카"와 "금홍아금홍아"에 대한전시
(녹색 갤러리,서울)
DMZ (덕원 미술관,서울)
1996 신데렐라 보고서(덕원 미술관, 서울)
인터넷 갤러리-Gig(가나아트 기획)
T.V전(공평아트센터, 서울)
제11회 로고스와파토스전(관훈 미술관,서울)
Install-scape전(문화예술회관,대구)
주소 서울 은평구 음암4동 297-19
전화 02-372-7450

백남준/Namjune PAIK

1932 서울 출생
1956-57 동경대 졸업, 아돌프 쉬베르그 연구로 미학사 학위 취득,
20세기 현대 음악공부를 위해 독일로 감

주요전시

1965 전자예술(갤러리 보니노, 뉴욕)

1968 전자예술(갤러리 보니노, 뉴욕)
1971 전자예술Ⅲ(갤러리 보니노, 뉴욕)
1974 백남준:비디오와 비디오학 1959-73, (시라커스 에비슨미술관, 뉴욕)
1980 비데아(갤러리 와타리, 동경)
1982 백남준 회고전(휘트니미술관, 뉴욕)
1984 굿모닝 미스터 오웰, TV중계소
백남준의 대부분의 비디오(동경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동경)
바이바이 커플링(파리 종파루센타, 파리)
1988 서울 올림픽개임을 위한 인공위성 TV쇼-세계를 둘러싸다(런던)
1990 백남준:보이스 소리(갤러리현대, 원화랑, 서울)
1991 백남준:비디오 공간(바젤미술관, 스위스)
1992 백남준 비디오 아트 30년 회고전
(국립현대미술관, 갤러리 현대, 갤러리 미건, 서울)
1993 이탈리아 베니스 비엔날레, 백남준:엘렉트로닉 슈퍼 하이웨이-베니스에서 올란바토르까지, 황금사자상 수상

석영기/Youngki SOUG

1960년생

1982 고려대 철학과 졸업
1987 University PARIS VIII Saint-Denis 조형 미술과 졸업
1992 City College of New York 대학원 졸업

1987-96 개인전-9회

단체전

1992 미술과 사진전(예술의전당, 서울)
1993 매체<미술(문화(코아트 갤러리, 서울)
1994 94과학+예술전(KOEX, 서울)
1995 인간과 기계: 테크놀로지 아트(동아갤러리, 서울)
1996 T.V전(공평아트 센타, 서울)
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계원조형예술전문대학 조형과
전화 0343-56-3280(H) 0343-20-1870(O)

심철웅/Cheolwoong SHIM

1985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및 동대학원 졸업(서양화전공)
1990 캘리포니아대학,로스엔젤레스(유씨엘에이)
미술사학과 대학원, 미술사 석사학위취득
1994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엔젤레스(유씨엘에이)
예술대학원 ,디자인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
컴퓨터그래픽/비디오전공 석사학위취득

개인전

1994 제1회 개인전 1st Solo Exhibition
유씨엘에이 엑스탄션 디자인 센타 갤러리
산타모니카,캘리포니아, 미국
석사학위전,와이트 갤러리, 유씨엘에이
1995 DMZ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전시회(덕원갤러리, 서울)
출판미술협회전(디자인 포장센터, 서울)
95 종합 영상 축전(비디오영상예술30년), 한국 종합전시장
1996 2회개인전(모인화랑, 서울)
3회개인전(이콘 갤러리, 서울)

안상수/Sangsoo AHN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 디자인과,동대학원

1990 아름다운 한글 600년전
1991 전자카페 프로젝트전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전
선데이서울전
1992 subclub documenta전(토탈 갤러리, 서울)
show show show전(갤러리 오존, 서울)
한국그라픽디자인의 오늘과 위상, 그리고 그 단면전
(나래디자인문화센터, 서울)
한국그라픽디자인어협회 회원전
아시아 그라픽디자인어협회 회원전
아시아 그라픽 포스터전(후쿠오카, 일본)
1993 [기호,언어,책,예술]전(금호 미술관, 서울)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전
1994 원격조정전(갤러리보다, 서울)
문봉전(청주국립박물관 + 무심갤러리, 청주)
부드러운 물전(문화예술회관 전시장, 수원)
위대한한글,아름다운 한글전(국립중앙도서관,문화체육부 주최)
pismo i obras)전 참가(아크메 갤러리, 포츠난, 폴란드)

1995	the FAX the mESSage, 전 포트갈Porto시 ICOGRADA Graphisme du monde World graphics 전(UNESCO paris) 한국 포스터 디자인전(Priebe Gallery, Oshkosh, 위스콘신, 미국) 한글사랑 나라사랑 전, 문화 체육부(세종문화회관 전시실, 서울) 아시아 디자인 6인전(ddd gallery, 오사카, 일본)
주소	서울 종로구 평창동 131-21
전화	02-391-1560

오경화/Kyunghwa OH

1960	서울출생
198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1986	프랑스 국립 파리 제8대학 조형예술학과 대학원 졸업
개인전	
1988	제1회 개인전(서울 수확랑)
1988	제2회 개인전 「비디오 통일곡」(바탕골미술관 야외 전시장, 서울)
1992	제3회 개인전(새로운 매체를 통해바라본 역사와 현대사회)](금호미술관, 서울)

단체전	
1990	동향과전망전(서울 미술관, 서울) [젊은시각 - 내일의 제안]전(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1991	소생하는 꿈(신세계 미술관, 서울) 전환시대 미술의 지평 전(금호 미술관, 서울) 미술과 테크놀로지(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1992	젊은 모색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과학+예술전(코엑스 전시장, 서울)
1993	매체<문화>미술(코아트 갤러리, 서울)
1994	여성 그 다름과 힘전(한국미술관, 용인)
1995	제1회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info art)(시립 미술관, 광주)
1996	열린 예술제(동아갤러리, 서울)
현재	단국대, 상명대, 계원예술 전문대 출강
주소	서울 노원구 하계1동 한신아파트 1-1501
전화	02-972-6291

윤동천/Dongchun YOON

195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크랜북 아카데미 오브 아트 졸업
1988-95	개인전 8회
단체전	
1993	Critical Impressions(플로리다 주립대학 박물관, 플로리다, 미국)
1993	성형의 몸(덕원 갤러리, 서울) 광나는 미래상자와 서툰 아이덴티티(토탈미술관, 장흥)
1994	In:fusion(크랜북뮤지엄, 미시간주, 미국) 동학농민 100주년 기념전(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기술과 정보 그리고 환경 미술전(엑스포 과학공원 재생조형관, 대전)
1995	국제 목사 미술제(갤러리 아트빔, 서울) 동물농장-WISHBORN(University of Sherbrooke, 퀘벡, 캐나다) 공간의 반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의 오늘-광주비엔날레 특별전(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1996	MANIF(예술의전당)
주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3 현대아파트 102-1006
전화	02-529-8171(집) 578-6110(작)

이강우/Kangwoo LEE

1964	충남 당진
199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1993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졸업
현재	한성대, 성신여대 강사

개인전	
1992	1회개인전(관훈갤러리, 서울)
1994	2회개인전(소나무갤러리, 서울)
1994	3회개인전(나무갤러리, 서울)
1996	4회개인전(덕원 미술관, 서울)

단체전	
1991-4	로고스와 파토스(관훈갤러리, 서울)
1993-5	앙가주망전(문예진흥원, 예술의전당, 서울)
1994	동학농민혁명100주년 기념전(예술의전당, 서울, 전주, 광주순회)
1994	젊은 모색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5	신체와 인식전(문예진흥원, 서울)
주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9-2 금성빌딩 201호
전화	02-3461-3783

이윤/LEE,youm

홍익대학교 조소과, 동대학원

개인전

The 1st Imagination '빨간 블라우스' (보다갤러리, 서울)

단체전

1995 D. M. Z (관훈 미술관, 서울)

1996 림싱크와 애드립(Sadi)
T. V전(공평아트센터, 서울)
Photographic Performance 길(북제주)

주소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3-18

전화 02-337-0516(집) 337-5134(작)

이원곤/Wonkon YI

1956	대구생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졸업
1993	일본 쓰쿠바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전기과정 수료
1996	같은 후기과정 이수

개인전	
1987	이원곤 비디오 인스탈레이션전(윤갤러리, 서울)
단체전	
1982-84	현대회화전
1986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이후 비디오 전자매체에 의한 작품 발표)
1987	
1988	The 1st Art Show in Seoul(제3미술관, 서울)
1989	한국현대미술전(멕시코 근대미술관) 청년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0	제1회 후쿠이 국제청년미디어아트전 우수상(후쿠이시, 일본)
현재	서울대, 서울산업대, 중앙대강사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산리 보라아파트 2-106
전화	0342-732-6567

이중재/Joongjae LEE

중앙대 졸

개인전

1996 피해보고서

1995 K 박사의 연구 2

단체전

1996 TV 전

1992 K 박사의 연구 전

1991 남북 교류전

주소 서울 강동구 성내1동 120-83 3층

전화 02-470-5104 472-9461

정영훈/Younghoon JEONG

1966년생

홍익대학교 조소과, 동 대학원 졸업

개인전

1995 [아브락사스의 시대](보다갤러리, 서울)

단체전

TV전(공평아트센터, 서울)

푸른의식표출전(서남미술관, 서울)

작가와 환경전(덕원미술관, 서울)

아세아 현대조각 초대전(후쿠오카, 일본)

서울현대미술제(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현대조각회전(예술의전당, 서울)

주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190-25 201호

전화 02-376-8608

조경숙/Kyoongsook JO

1960	서울 출생
1984	홍익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1988	캐나다 온타리오 미술대학 실험미술과뉴욕 캠퍼스 졸업
1986	조경숙전(윤갤러리, 서울)
1987	통일전(그림마당 민, 서울) 10% SHOW(마이너 인저리, 뉴욕)
1988	COAST TO COAST: BOOK ART PROJECT(다이버스 워크 갤러리, 휴스턴) 프린티드 매터 ,뉴욕 등 미주 순회 전시
	이민전(알파인 갤러리, 뉴욕)
1989	반 아파트헤이트전(브롱스 리버 갤러리, 뉴욕)
	제3회 여성과 현실전(그림마당 민, 서울)

1990	정치선전전(그림마당 민, 서울)
1991	17인의 경의선 사진작업(눈빛 출판사 출판) 혼돈의 숲에서(자하문 미술관, 서울) 압구정동 유토피아/디스토피아(갤러리아 미술관, 서울)
1993	매체<미술>문화(코아트 갤러리, 서울) 비무장지대전(시립미술관, 서울) HER STORY(바탕골 미술관, 서울) 열린시각 인쇄매체전(미도파 갤러리, 서울)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현실문화 연구 출판, 서울)
1994	민중미술 15년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여성 그 다름과 힘전(한국미술관, 용인)
1995	여성 · 역사(부산갤러리, 부산) 95국제복사미술제(갤러리 아트빔, 서울) 해방50년 역사미술전(예술의전당, 서울)
1996	정치와 미술전(광주 신세계 갤러리, 광주/보다 갤러리, 서울)
1996	인터넷 갤러리 Gig전(가나아트)

최은경/Eunkyung CHOI

1983 홍익대학교 서양화와 졸업,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졸업
1회개인전(관훈미술관)
2회 개인전-Computer ART & Printing
단체전/초대전
서울현대미술제(미술회관)
한국 현대판화가 협회전(미술회관 etc)
감성확인전(그로리치 화랑 etc)
한국 컴퓨터 그래픽스대전(KOEX)
대한민국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SEOULGRAPH 92한국 컴퓨터 그래픽스 대전(KOEX)
과학+예술전(KOX)
SICAF 92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Art Show(백상갤러리)
서울 니맥스 예술제(Anthology Film Archives, 미국뉴욕)
인간과 기계:테크놀로지 아트(동아갤러리)
광주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광주비엔날레 전시장, 광주)
95종합영상축전-컴퓨터영상, 한국의 CD-ROM(KOEX)
96대구 아시아미술전(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현재 30캐럿회원, KC컴퓨터 아트연구소 소장, 서울보건대전문대학 대우전임

한수정 /Soojung HAN

199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판화전공 졸업

개인전	
1992	관훈미술관
1995	그림자로 보기(갤러리 드 서울, 서울)
1996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보다 갤러리, 서울)
단체전	
1994	젊은 시각전(갤러리 미전) 畫郎詩 · 詩郎畫-배준성 · 한수정2인전(녹색 갤러리) Hidden in Space(녹색 갤러리) 판화 도시 탐험전 (갤러리 서호) C. P 판화전(갤러리21) AD 1234이후(갤러리이콘) 로고스와 파토스전(관훈 갤러리) 김동유 배준성 한수정 허구영 4인전(가인화랑) 피스모 오브라스 전(폴란드 포즈남I. A. C 미술관, A. B. C미술관)
1995	국제복사 미술제(갤러리 아트빔) 95서울판화미술제선정작가전(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대구특별전(대구문화예술회관) 금호미술관 개관6주년기념전, 미술, 습관 반성(금호 미술관) 씨네마 인 갤러리(녹색 갤러리) 비무장지대전(인사 갤러리) 로고스와 파토스전(관훈미술관) 제14회 서울 국제판화 교류전(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96	Install-scape전(대구 문화 예술 회관) 제11회 로고스와 파토스 전 TV전(공평아트센터) ART at home(서미갤러리) 동아 열린미술제(동아갤러리) 신데렐라 보고서(덕원 미술관)

주소	서울 은평구 응암4동 297-19
전화	02-372-7450

홍성도/Seongdo HONG

1953년생	
홍익대 조소과 졸업(B. F. A)	
Partt Institute 졸업(M. F.A)	
개인전	
1991	Higins Holl(Brookiyn, NewYork) 갤러리 현대
1992	소나무 갤러리 (서울)
1994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서울)
1995	갤러리 보다(서울)
단체전	
1996	신촌전(문예진흥원, 미술회관) 현대조각회전(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신데렐라레포트전(덕원 미술관) 대구설치 미술전(대구예술회관)
주소	경기도 고양시 강촌마을 508-1803
전화	0344-904-1573

홍성민/Sungmin HONG

1987	홍익대 서양화와 졸(B. F. A)
1990	뉴욕대 (N. Y. U)석사(M. A)
1992	시카고 미술대(S. A. I. C)타임아트 석사(M. F. A)
개인전	
1994	사우나/사운드(미도파 갤러리 초대)
1992	대중매체와 다중매개체(동방플라자 갤러리 기획)
1991	GALLERY2(CHICAGO)
1990	E. WASHINGTON GALLERY(N. Y)

단체전	
1996	INSTALL-SCAPE(대구문화 예술회관) 도시와 영상, SEOUL IN MEDIA(서울 시립미술관) 전국환경미술제(경기도 문화 예술회관)
1995	광주비엔날레 특별전/〈INFOR ART〉(광주 시립미술관) 썩(서울 신재미술관) 자전적 문화론(갤러리 서호) 미음완보 전(청남 갤러리) 성수/성소(인사갤러리) 신세대흐름전(문예진흥원 미술관주최)
1994	제4회 아시아 미술제(REALISM AS ATTITUDE) (훗쿠오카 미술관주체, 동경 하코네, 현대미술관 순회전과 워크샵 참가, 일본) 노스텔지어/암네지어(금호갤러리 개관 기념전) 리모트 콘트롤전(보다 갤러리) 젊은 모색전(국립현대 미술관)
현	비디오 아티스트, 계원 조형예술전문대 조형과 전임강사
전화	0343-20-1863/Pager 012-841-3475

홍순철/Sooncheul HONG

개인전	
1978	빛과 소리속에서(서울화랑, 서울)
1980	Light-Lighting(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후원 서강대학교TVSTUDIO, 서울)
1989	검은강(한강미술관, 서울)
단체전	
1975-79	앙데팡당전
1981	신촌의 겨울전
1982	한국현대미술 모색전 NOWGROUP창립전(관훈미술관, 서울) 한국 현대미술80년대 조망전(미술회관, 서울) 제1회 젊은의식전(미술회관, 서울) 현대미술의조망전(몽마르뜨 화랑, 인천)

TV프로그램 연출

1983-84	미술이야기 시리즈<공간의 표현>, EBS
1988	<세계의 교육 그 현장을 가다>, MBS
1989	<해위임양아>, MBC
1990	<인간시대>, MBC
1992-93	<그것이 알고 싶다>, 기획 연출 SBS
1994	<보이지 않는 전쟁>, SBS

